

해외학술탐방장학 결과보고서 (복두칠성)

목차

01 항공권 사본

02 예산 사용 내역

03 일정표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05 탐방 기관 인터뷰 및 요약

06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 계획

03 일정표

| 일자 | 국가 | 도시 | 장소 | 주요일정 |
|--------------------------|---------------|---------------|------------------------------|---------------------------------|
| 2022/06/29(수) | 네덜란드 | Zandvoort | Brederodestraat 41 | 네덜란드 입국 및 숙소 입실 |
| 2022/06/30(목)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암스테르담 첨단과학연구단지 | 암스테르담 첨단과학연구단지 견학 |
| 2022/07/01(금)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반고흐 미술관 및 하이네켄 박물관 | 반고흐 미술관 및 하이네켄 박물관 견학 |
| 2022/07/02(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필립스 본사 | 필립스 본사 탐방 및 현직자 인터뷰 진행 |
| 2022/07/03(일)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NEMO과학박물관 | NEMO과학박물관 탐방 및 견학 |
| 2022/07/04(월) | 독일 | 뮌헨 | 마르크뮌헨 (숙소) | 독일 입국 |
| 2022/07/05(화) | 독일 | 뮌헨 | BMW 박물관 | BMW 박물관 탐방 |
| 2022/07/06(수) | 독일 | 뮌헨 | 알리안츠 본사 및 알리안츠 아레나 | 알리안츠 본사 탐방, 아레나 구장 견학 |
| 2022/07/07(목) | 독일 | 뮌헨 | 마르크뮌헨 (숙소) | 자유견학 및 휴식 |
| 2022/07/08(금) | 독일 | 뮌헨 | BMW 공장 및 BMW WELT | BMW 공장 및 BMW WELT 견학 |
| 2022/07/09(토) | 한국 | 인천 | 공항 | 귀국 |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암스테르담 첨단과학연구단지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ASML(반 고흐 박물관)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PHILIPS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NEMO과학 박물관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BMW 박물관 및 공장

04 탐방기관 방문 사진



알리안츠 본사

05-1 필립스 기관 방문 내용 및 인터뷰 요약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필립스 본사 Procurement Excellence부서의 consultant직무를 맡고 계신 Noah Waldenberger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셸트리온으로 볼 수 있는 네덜란드의 대표적 헬스케어 기업인 필립스는 지속가능경영에서 꾸준히 높은 등급을 받아왔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이 취약한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ESG경영에서 환경측면과 지배구조 측면 관련해서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 지배구조 측면의 답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여성임원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필립스는 12명의 임원 중 4명이 여성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 문화를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 문화를 확립할 수 있었는지 여쭙보았고 이에 Noah현직자님의 답변은 "그저 능력있는 사람이 적합한 포지션을 담당하는 것 뿐" 이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었지만 단순하고 명료했기에 더욱 와 닿았던 답변이었으며 지배구조 측면이 취약한 수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날릴 수 있는 일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필립스 뿐 아니라 저희가 탐방했던 대부분의 기업은 모두 여성임원 수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한국의 ESG경영을 강화하고 전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각 기업의 임원들에게 반기 또는 1년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된 윤리 교육을 임원들에게 의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2 하이네켄 글로벌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하이네켄 글로벌은 이미 몇 해 전 ESG경영의 전 단계인 ESR현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하이네켄 코리아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가 다른 여느 기업과 다른 점은 대외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말 환경부와 함께 진행되었던 ‘페트라떼 캠페인’(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하는 캠페인)에는 많은 직원이 직접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영상과 사진을 사내 SNS에 게시하는 등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인 회사에 소속된 것에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직원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는 하나의 원칙을 확립하며 실제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회사에 채 5번도 안 나온 직원들이 상당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기에 ESG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있는 몇 안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하이네켄 박물관에서는 하이네켄 창립 배경 및 역사부터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긍정적 요소들을 현지 가이드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이네켄의 강력한 ESG경영을 만든 장본인은 샤를렌 드 카발로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1988년부터 하이네켄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야심찬 환경 관련 목표와 프로젝트들을 도입하며 하이네켄의 지속가능성 사업을 혁신화했습니다. 오늘날 하이네켄의 ‘녹색 비전’은 회사의 모든 운영 방식과 과정에 녹아 있기에 한 명의 임원이 ESG경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SG경영 수치가 낮은 한국 기업의 임원들에게 하이네켄의 역사에 대한 영상을 통해 윤리 교육을 실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05-3 암스테르담 첨단과학연구단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암스테르담 첨단과학연구단지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도 같은 장소인 Amsterdam Science Park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에 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것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열정을 고취시키기에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암스테르담 사이언스 파크는 암스테르담시와 암스테르담대학교, 그리고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네덜란드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만든 연구 단지입니다. 연구 단지의 창립 목적은 내부적으로 입주한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암스테르담 사이언스 파크를 외부 협력자들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곳은 유럽의 과학 관련 기관들이 가장 많이 집중 되어있는 곳 중 한 곳이며 수십개의 저명한 연구 기관들, 스타트업부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약 120개의 회사 모두가 모여 IT, 생명과학, 첨단 산업, 지속 가능한 산업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파크의 연구자들 중 노벨상, 스피노자상, 유럽의 리서치상 수상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방문 당시 시작이 13:00~14:00 사이였기에 한국이라면 한창 업무를 봐야하는 시간이었지만 연구단지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작은 충격을 받았으며 연구 단지 전체가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것도 인상깊었습니다. 컨테이너 속에 컴퓨터를 놓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한 대의 컴퓨터 앞에 4~5명의 성인 남성이 한 화면을 바라보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런 시너지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현재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비즈니스는 떠오르지만 암스테르담 과학연구단지처럼 대학교,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대표적 비즈니스는 떠오르지 않기때문에 3개의 주체가 협업하여 국가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05-4 네모과학박물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2021년 기준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와 핀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을 살펴보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거대한 네모과학박물관을 탐방해보았습니다. 네모과학박물관의 다른 이름은 암스테르담 과학기술 박물관이며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초록색 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음향, 시각, 의학, 유전공학, 물, 금속, 화학, 인간의 사고 등 현대 과학과 기술을 한 곳에 모아 놓았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체험 위주로 과학을 설명하는 부스들이 종종 설치되어 있어 쉽게 과학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해 놓았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비누방울을 만들어 보거나 화학 실험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기에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지속가능성 부문 1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이기에 어릴 때부터 과학에 친밀하게 접근 하다 보니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자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 결과 네덜란드라는 국가 자체가 ESG측면에서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계기였습니다.

05-5 반 고흐 미술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기존에는 ASML본사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인터뷰 답변자를 찾지 못하여 ASML이 실천하고 있는 ESG경영 중 S에 속하는 반고흐 미술관 파트너십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미술관 내부에 들어가서 ASML과의 파트너십 Description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SML은 반고흐의 석판술이 예술가적 목적을 뛰어넘어 기술의 혁신까지 확장되었다고 기술하며 반도체 기업인 ASML과의 정체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반고흐 미술관과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다가오는 세대에게 반 고흐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ESG의 S측면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05-6 알리안츠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 알리안츠 기관 방문 내용 및 인터뷰 요약

독일 뮌헨에 있는 알리안츠 본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4대 자산운용사인 알리안츠는 총 매출액 기준 세계 30대 기업 안에 속하기도 하며,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8200만명 이상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보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 알리안츠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리안츠는 ESG 경영 중에서도 S와 G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알리안츠의 지배구조(G) 측면에서 기업 내부에 ESG 이사회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지속가능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개별 ESG 사무국과 실무그룹 등의 탄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이례적인 기업 구조여서, 얼마나 알리안츠가 ESG 경영에 진심을 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SG 사무국은 알리안츠의 ESG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면서 ESG 정책에 관련된 모든 홍보와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알리안츠의 자회사들과 사업부들에 속한 ESG 담당 직원 모두를 포함한 ESG 실무그룹의 경우 ESG 를 위한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고안합니다.

더불어 알리안츠는 ESG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ESG 경영 중에서도 S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배출, 빈곤 퇴치 등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리안츠는 13개의 구호재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구호 사업들에 전 세계를 걸쳐 참여하고 있습니다.

05-6 알리안츠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이러한 알리안츠의 사회적 활동들은 알리안츠의 자체적인 기업 가치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 또한 알리안츠 기관 방문을 통해 '알리안츠'라는 거대 기업이 오직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그것에 도움이 되어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와닿았고, 그 결과 더욱 알리안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리안츠는 ESG 경영의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모든 사업 전반에 깊이 고려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1년 상장 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 따르면, 통합등급 우수를 받은 보험사는 총 8곳으로 생명보험사 2곳과 손해보험사 7곳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와 달리 ESG 경영에 신경 쓰고 있지만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화재, 코리안리, 메리츠 화재 등 9개의 보험사는 여전히 B등급 이하의 취약한 ESG 수준을 보입니다. ESG 중 E 측면에 심혈을 기울이는 제조업과 달리, 직접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등과 같은 실천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의 기업들은 ESG 경영에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험사들과 금융 기업들 또한 알리안츠와 같이 기업 구조와 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만 할 수 있는 ESG 경영의 방향을 찾아, 특성을 살린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생산, 녹색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투자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추진하는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더욱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윤, 이익을 위해 대외적인 이미지만을 위해 ESG 경영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때 소비자들과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업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7 BMW본사, 공장 및 박물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독일 뮌헨에 있는 BMW 공장 및 BMW 박물관, 본사에 방문하였습니다. BMW 박물관은 BMW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박물관입니다. 1973년 처음 세워졌으며, 자동차 엔진 모양의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BMW의 역사, 정신, 기업의 비전 등을 여실히 담고 있는 박물관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오토바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만드는 BMW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 탐구하고자 '독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BMW 때문일 정도로, BMW는 ESG를 기업 경영 전반에 내세우고 매년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독일 기업들 중에서도 바스프, 알리안츠와 함께 독일에서 손꼽히는 ESG 모범 기업입니다. BMW는 2001년부터 환경 요소를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최고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상을 받고, 2020년부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재정정보보고서와 합쳐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BMW는 BMW에 대한 자부심을 직원 모두가 지니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고급 차량 제조 업체인데, 동종업계 중에서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BMW가 제조기업인 만큼,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는 BMW 공장 견학에서 자세히,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BMW 공장 견학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생산 과정의 바탕이 되어 있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BMW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BMW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듭니다.” 라는 BMW AG 경영이사회 회장인 올리버 집세(Oliver Zipse)의 말의 뜻을 공장 견학의 모든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05-7 BMW본사, 공장 및 박물관 방문 및 인터뷰 요약

BMW는 2001년 UN 환경프로그램인 '국제청정생산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Cleaner Production)'에 서명하며 세계 BMW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여러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생산 현장에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BMW 차량 250만 대의 내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 세계 폐기물의 99%는 재활용 및 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료 재활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재 재사용은 지능적 생산 계획과 더불어 BMW 부가가치 체인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은 정책이며, 이에 따라 BMW 공장에서 특정 부품에 약 25%의 2차 강철과 최대 50%의 2차 알루미늄, 최대 20%의 2차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BMW는 30개 국가 및 각국 판매 업체와 함께 폐자동차 회수 규정을 마련했고, 세계적으로 3천 곳이 넘는 회수 장소에서 환경 친화적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BMW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생산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며 설명을 듣는 경험은 글로 배우고 매체로 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내부에 사람은 몇 명 없는 반면에 수많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모습 또한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06-1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

1. 느낀점

제가 이번 해외 탐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수와 해외 기업의 여성 임원 수의 차이에 대한 발생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굉장히 낮지만 탐방 국가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이 한국 기업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이 건설사나 조선업에 속한다면 해당 기업의 임원진은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2년 전까지도 한국 보험사의 전부가 여성 임원 비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진에서 성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해외 탐방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필립스의 현직자인 Noah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답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어떤 특정 인원이 능력이 있다면 적절한 자리에 배정받아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당연한 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여성 임원은 찾기 어려우며 전체 공기업의 여성 임원수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06-1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특정 직군에 따라 어느 성별이 더 일을 잘하며 유리한 직군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여성이 더 적합한 성별일 수 있지만, 현장 출동에 나가서 범인을 제압 해야 하는 경찰은 남성이 적합한 성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직이 주 업무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위와 같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무직이기에 특정 성별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극히 능력주의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가 하루 빨리 건전해지길 바랍니다.

2. 발전계획

저의 꿈은 증권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ESG경영이라는 토픽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SG경영 관련 펀드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Dart(기업공시사이트)에 공시되는 기업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그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탐방을 통해 외국 기업의 ESG경영 실천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온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SML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반고흐 미술관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필립스와 같이 전 세계에 분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은 직원들에게 하여금 ESG경영 철학을 고취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직원 또한 ESG경영에 대하여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에 기업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애널리스트 현직자가 된 이후에 ESG경영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였습니다.

06-2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

1. 느낀점

팀원들과 치열하게 준비했던 해외학술탐방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다양한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외학술탐방에 처음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수 많은 일들은 모두 다 저에게 단단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10박 11일의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저를 더 성장시켰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1)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해외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어도, 학술적 목적을 갖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탐방하고,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는 등의 목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동국대학교라는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했을 때에 망설임 없고 두려움 없던 저와 달리 해외에 나가서 학술적 교류를 하는 것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막연한 무서움도 있었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생애 처음 가보는 나라였기도 했고, 아는 것도 경험도 없이 나가서 학술적으로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같이 기업을 찾아보고, 왜 그 나라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하나 헤쳐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이든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학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층 더 폭 넓은 시야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새로운 진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취업의 루트는 사실 상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통해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 입사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이 가장 많았고 저 또한 그러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국내에 있는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 수

06-2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

1. 느낀점

2) 있었고 실제로 기업에 탐방을 갔을 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고,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해외학술탐방을 계기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외국계 기업 취업이나 인턴, 외국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ESG 경영'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학술탐방을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을 선택한 것도 두 나라에 ESG 경영을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훌륭한 선례들을 직접 확인하고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ESG 경영에 대해 처음 접하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지만 글과 책을 통해 이해를 하는 것과 직접 그 기업에 가서 현지에서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견학을 해보며 그 기업의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더욱 와 닿았으며 얼마나 ESG 경영을 중요시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을 위해 특별한 부서가 존재하거나 정책이 따로 있기보다 이미 그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에 ESG 경영이 스며들어 있으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고려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있는 해외학술탐방장학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귀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이러한 값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6-2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_고아라

2. 발전계획

1)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글로벌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뿐 아니라 제3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영어가 아예 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토익 스피킹, 오픽과 같은 영어 회화 뿐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3외국어를 공부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더불어 나라마다 문화와 분위기가 정말 모두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세계적인 글로벌 시사 부분도 평소에 뉴스, 기사, 등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 ESG 경영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여러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남는 것은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리안츠의 경우 70개국에서 15만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모든 지사와 부서에 ESG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ESG 요소를 모든 사업 전반에 반영하여 통합하려는 선도적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MW의 공장에서도 여러 단계에 걸쳐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립스의 본사가 위치해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필립스는 수년간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고 북해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은 기업 전반의 모든 정책,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경영대학 학생으로서 앞으로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06-3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_도영훈

저는 해외학술탐방장학 북두칠성팀의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17학번 도영훈입니다!
먼저, 생애 첫 유럽을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갈 수 있어서,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해외학술탐방을 준비하면서, 팀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 선정부터, 기업 컨택, 준비 서류와 마지막 면접까지 새롭고 유익한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선발 이후, 팀원 모두가 유럽이 처음이다 보니, 세부적인 계획과 항공권, 숙박, 교통 등을 알아보며 막막하기도 했지만, 좋은 기회를 잡은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10박11일의 해외학술탐방은 제게 네 가지 큰 느낀 점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교내/교외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교환학생, 유학과 같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학술탐방으로 인해,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글로벌 시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공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외국어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막연히 학사/석사 졸업 이후,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학술탐방을 하며 기업을 컨택 하는 과정에서나 탐방했던 기업, 그리고 직원들을 보며 정말 다양한 국적의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과 업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 꼭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06-3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

세 번째로, 동국대학교의 '해외학술탐방장학'이라는 좋은 제도가 많은 학우들께 알려지고,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방 이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나 V-LOG에는 해외탐방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담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의 주제와 계획에 적합한 탐방 활동과 더불어 각국의 문화를 느끼고 적응하며,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팀의 탐방주제였던, ESG경영을 바라보는 공학도로서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사실 ESG 경영이라 하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와 달리 사각지대와 허점이 존재하며, 기업과 산업 특성에 따라 실천방안이 매우 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독일의 ESG 경영 우수기업을 탐방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학도로서 환경적인 부분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BMW공장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때, 대부분의 부품재료를 재활용한다는 점과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심해 광물 채굴부터 심해 채굴로 생산된 자원 구입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국내 대기업들의 ESG경영 실천방안들을 주목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IT기획 직무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기업의 ESG 경영의 비전을 되새기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06-4 탐방 후 느낀점 및 발전계획

1. 느낀점

저는 화공생물공학과 학생으로 공과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해외탐방에서 기업의 ESG 경영 중 E인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해외 탐방 중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BMW 공장에서 BWM 자동차의 생산 과정을 실제로 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BMW 공장 견학입니다.

학교 전공 수업에서 생산 공정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기업의 공장에 견학해서 그 과정을 탐방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장 견학을 통해 생산 전과정에서 reuse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점, 그리고 생산 과정의 대부분을 인공지능 로봇이 담당하고 있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특히 스스로 판단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내는 수많은 로봇들의 모습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각자의 부분들을 맡아서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 우리 인간들의 기술력이 놀랍고도 신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정교한 기술력을 갖게 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고, 앞으로 더욱 많은 직업들이 로봇의 역할로 대체되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실업의 문제도 더욱 고착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공대생으로서 이번 해외탐방을 통해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느꼈고, 앞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며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발전계획

이번 해외탐방을 통해 느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영어 회화 능력입니다. 해외를 방문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영어권 국가를 방문해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영어도 해보고 영어 공부도 따로 하며 항상 영어 회화 능력 향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저에게는 영어권 국가 여행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번 2주 간의 해외 탐방을 통해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도 해보고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게 되며 부족한 저의 영어 실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꾸준히 하여 언젠가 있을 다음 해외 방문 시에는 더욱 발전된 회화 능력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배워올 계획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배워온 ESG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공학도로서 다양한 공정 개발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화장품 품질 관리 또는 바이오 의약품 공정 개발 직무에서 최대한 많은 과정에서 reuse와 recycle을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심해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생산과정에서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사람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심화된 고민을 하며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싶습니다.